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흐린 뒤 맑음 13/22℃	구름 조금 9/23℃

#### News

- 국내 경기 하강 국면 ②
- 어느 수형자의 고백 ③
- 안선주 첫날 단독 선두 ⑩

#### Books

- 조셉 캐민스 '만들어진 역사' ⑭

#### Entertainment



- 뮤직비디오 콘텐츠 다양 ⑧
- 스타감독 흥행몰이 기지개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취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지 내로 명문대학 캠퍼스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 화학 첨가제 식품

미국 쇠고기·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수입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가족 식탁은 우리가 지키자'는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3제로 식탁 만들자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전담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오전 광주 시 서구 농성동 전남도 농산물홍보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유전자변형 조작 농산물(GMO), 화학첨가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3제로 운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단체급식소와 외식업체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에서 추출한 성분인 생리대나 식품 등에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먹을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도 준비 중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입 쇠고기 안사고, 안먹고, 안팔기 운동'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식자료를 선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찾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 광주·전남 학부모, 교사 등 시민운동 전개

며 "특히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밥상이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분말이나 첨가제 형태의 수입쇠고기 가공품의 유통, GMO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제빵, 각종 장류, 양념류 등에 화학식품첨가제가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학교급식에서 완전히 추방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 사업체계를 갖추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여성·교원단체들도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불매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을 세웠

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의 확충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과일·채소류에만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을 한우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밖에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대책위'는 광주·전남지역 학교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클린선언을 이끌어내고, 단체급식을 시행중인 대학과 업체 식당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희정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 "주부들을 중심으로 '내 가족은 내가 지키자'는 자구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F1 머신·수퍼카 '한눈에'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1(포뮬러원)·수퍼카 쇼'에 전시된 '페라리 50' 배기량 4천700cc에 18억 원을 호가한다. 18일까지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쇼에서는 코닉세코, 벤츠, 람보르기니 등 수퍼카를 볼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부 혁신도시 '오락가락' 李-朴 오늘 회동

### "재검토→보완 추진" 말바꾸기 일쑤

#### 국민들 혼란만 가중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재검토'→'발전적 보완' 등으로 자꾸 말을 바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혁신도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쟁점마다 입장이 오락가락하는데 정리가 됐느냐'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변화가 없지만 지방정부도 스스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중앙집권적으로 일괄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혁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질문에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해가며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문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여러 여건이나 변화를 감안, 혁신도시 추진을 더욱 발전적인 취지에서 여러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정훈 나주시장은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자꾸 말을 바꾸며 특별법으로 규정된 공공기관 이전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李-朴 오늘 회동

### 친박 복당 등 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지난 1월23일 이 대통령 당선인 당시 회동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9일 "총선 직후 이미 이 대통령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박 전 대표도 외국 순방이 있어, 더 늦어지기 전에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에서 탈당 친박 당원자들의 복당 문제를 비롯, 미국 쇠고기 파동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복당 문제에 대해 공천현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 친박 무소속 연대와 친박연대 인사들의 복당을 제안 할 것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예우로 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전부 복당이 되면 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